궤도차희생 여중생 추모·SOFA개정 촉구

불교계, 3보1배·108배 항의 집회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천도재 봉행

미군 궤도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에 항의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는 불교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는 4일부터 추모법회, 3보1배, 108배 항의집회를 갖는 등 여중생 추모와 SOFA 개정촉구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 조계사와 경산 안홍사는 4일 추모법회를 개최했으며, 재가연대 실천승가회 대불청 대불련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불교대책위원회(준)는 6일부터 11일까지 매일 12시 미대사관 옆 광화문시민공원에서 108참회했다. 또 불교인권위원회 대표 진관스님과 불교환경연대 대표 수경스님은 9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조계사(주지 지홍)는 4일 2천여명의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54톤 미군 궤도차에 희생된 신효순 심미선 극락왕생 발원 천도재 및 SOFA(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촉구 기원법회를 개최했다. 조계사는 법회 후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7일 밤 광화문앞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동참했다.

경산 안홍사도 4일 지역 시민, 사회, 종교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효순, 심미선양의 넋을 위로하는 영가 천도재를 개최했다.

불교계 10개 단체로 구성된 '미군범죄 근절과 SOFA 개정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준)'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진관스님과 청년불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군 참회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범불교도 108배 정진을 실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목요단식 108배 법회, 야간촛불시위, 제사회단체 연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계사청년회도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미선·효순 왕생극락 발원, SOFA 개정 촉구 청년법회를 개최하고 저녁에는 유가족과 함께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불교인권위원회는 13일 미국대사관에서 조계사까지 행진하며 항의시위를 할 계획이다.

◇평불협 대구경북본부는 5일 대구백화점에서부터 미군부대까지 3보1배 정진을 하며, SOFA개정을 촉구했다.

평화통일불교협회 대구경북본부는 5일 안홍사 주지 장적, 경흥사 주지 하종, 반룡사 주지 천은 스님, 안홍사 신도회, 대구 정토법당 회원 등 사부대중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백화점에서 미군 부대까지 여중생 살인미군 무죄판결 규탄과 소파협정 전면 재개정을 위한 3보 1배 정진을 벌였다.

영남불교대학 총동문신도회(회장 배선혜)도 4일 "미 군사재판을 무효화 하고 살인미군 처벌을 위한 항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법당등 굴산사터 사역 확인

태풍으로 드러난 유적 긴급발굴조사

지난 8월말 발생한 태풍 루사 덕분에 사굴산문의 본산인 굴산사터의 사역이 확인됐다.

태풍으로 주변 농경지가 유실되면서 주춧돌 등 유적 일부가 드러난 강릉시 구정면 학산2리 굴산사터(시도기념물 11호)를 긴급 발굴조사했던 강원문화재연구소 고동순 연구원은 6일 열린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주관 제3회 강릉학 학술세미나에서 "사역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굴산사터는 남북 길이 250m, 동서 길이 140m에 이르는 대규모 질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10월 중순부터 한 달간 실시된 조사에서는 법당과 회랑, 승방 등의 건물터가 새로 발견됐으며 '굴산사(屈山寺)'명 기와도 함께 나왔다. 특히 법당터에서는 화강암을 잘 다듬은, 가로·세로 각각 1.24m, 높이 35cm에 이르는 대형 정방형 주춧돌이 출토돼 법당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 연구원은 "사역 대부분이 사유지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하고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해 굴산사터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공명선거불교협 출범식

공동집행위장 법현스님

19일에 치러지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해 공명선거실천불교시민운동협의회(공동대표 법타·수경·법륜·백창기, 공불협) 출범식이 개최됐다.

4일 만해교육원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법타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주지 스님 및 신도회 간부와 친분이 있는 특정정당 후보가 사찰에 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며 "불자를 스스로가 각성해 여기에 현혹당하거나 이용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현스님(공동집행위원장, 동방대 교학처장)은 출범 선언문 낭독을 통해 △온라인 공명선거 실천 및 투표 참여 운동 △부정선거 감시 고발 전화 1588-9898 운영 △불교 유권자 행동지침 등을 발표했다.

한편 공불협에는 종단협, 동산반야회, 경불련 등 총 11개 불교단체가 참여했다.

남동우 기자

동국·승가대 신입생 모집

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동국대와 중앙승가대가 200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동국대는 3,804명(서울 2,155명, 경주 1,649명)을 모집하는 정시에 국내최초로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를 받는다. 또 당락의 영향이 적은 '면접고사'는 사범계열 및 문예창작과만 제외하고 폐지키로 했다. 동국대 원서접수는 10일부터 13일까지이다. 문의 (02) 2260-3031~4

또 중앙승가대도 불교학과, 역경학과, 포교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4개과에서 신입생 122명을 모집한다. 문의 (031) 980-7717

김원우 기자

종교관점서 본 사형제도

종교언론인협, 심포지엄

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는 14~15일 강화도 가족호텔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를 주제로 제6회 종교언론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차차석 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이 '종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제도'에 대해 기조발제하며, 각 종교별 주제발표및 토론에는 최규창(기독교신문 편집국장), 정유제(밀교신문 편집국장), 우세관(원불교신문 기자), 서경희(신인간 기자) 서상덕(카톨릭신문 기자) 씨가 참여한다.

김원우 기자

용문사 임시법당 파손

비닐 찢기고 불상도 옮겨져

일주문 100m 전방에 현대식 향토민속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에 반발해 지어놓은 임시법당이 강제철거 당했다.

용문사 부주지 보인스님은 "1일 스님들이 임시법당을 잠시 비운 사이 비닐로 만들어 놓은 법당이 날카로운 물건에 갈기갈기 찢겨지고 안에 있던 부처님이 밖으로 나와 있었다"며 "이는 박물관 건립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문사 향토민속박물관 건립 문제는 양평군이 98년 5개 업체의 설계공모를 거쳐 지난해 10월 64억 7천여만원을 들여, 연면적 766평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실제높이 18m) 공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보인스님은 "양평군이 사찰경관과 잘 어울리는 모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불교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약속해 놓고 공사를 강행했다"며 "이전이나 설계변경을 할 것"을 양평군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양평군청은 "이전이나 설계변경 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수행환경 결사수호의지 천명

용화사 케이블카 반대 16일부터 산문폐쇄

통도사 영축산환경위 발족 초산유원지 대응

화운사 용인사암련, 송전선로 추가건설 저지

수행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용화사, 통도사 등 사찰들과 불교계가 결사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용화사는 통영시의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결정에 대해 16일부터 산문을 폐쇄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98년부터 4년이 넘게 지속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운동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문 폐쇄를 결정한 용화사 주지 선곡스님은 "산문폐쇄라는 막다른 조치로 사찰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불교성지요, 시민들의 휴식처인 미륵산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기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다"고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초산유원지 개발로 사찰 인근 산이 파헤쳐지고 있는 통도사는 11월 29일 경내 도서관에서 영축산 환경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자연파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했다.

영축산 환경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구성을 구성한 자리에서 '초산유원지 공사 즉각 중지와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앞으로 법적, 물리적 대응책까지 모두 동원해 초산유원지 공사와 신평 우회로 공사로 인한 자연파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내외 고압송전철탑 설치 계획으로 사찰이 송전탑에 둘러쌓일 위기에 놓인 용인 화운사는 4일 용주사에서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용인시 사암연합회는 "현재 한국전력이 공사중인 화운사 전면 345KV 송전선로 건설도 화운사측이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화운사 정, 후면에 154KV 건설을 하는 것은 화운사에 거주하는 스님들은 물론 방문객에게도 위압감과 혐오감을 준다"며 "이는 사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사찰 존폐와도 관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미희·남동우 기자

영월 나한상 출토 절터는 '창령사'

명문기와 출토, 문헌 뒷받침

지난 해 5월 조선전기 석재 나한상 300여 점이 무더기로 출토(본지 341호 참조)됐던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 2리 절터의 이름은 '창령사(蒼嶺寺)'로 밝혀졌다.

발굴조사를 맡았던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윤석인 연구원은 11월 30일 열린 강원고고학회 학술대회에서 "'창(蒼)'자가 새겨진 명문기와와 '령(嶺)'자명 기와가 수습되었는데, 정밀분석 결과 '창(蒼)'자의 '口'와 '령(嶺)'자가 서로 연결되어 '창령(蒼嶺)'임을 알 수 있다"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영월부읍지〉 등의 문헌기록과 비교해 볼 때 절 이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동국대 중앙도서관 준공

첨단시설…열람석 2천석

동국대는 3일 신축현장에서 중앙도서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축 도서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16,196㎡ 규모로 지난해 5월 착공, 18개월 만에 완공됐다. 112억원의 공사금액이 투입된 신축 도서관은 불교학 자료실을 비롯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개가식 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전시실, 세미나실 등을 갖췄다. 또 중앙아트리움, 드라이에어리어 천장 등의 자연채광법, 중앙 냉.난방설비, LAN 등 현대적 첨단시설을 완비했다.

김원우 기자

목탁소리

포교하러 룸살롱에?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신동아(12월호)〉 인터뷰 내용을 놓고 말들이 많다. 그런데 그 '말'이라는 것이 대부분 비난조다. 심지어는 "총무원장도 '막 말'을 하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며 대놓고 스님들 '욕' 올 하는 사람들도 있다.

비난의 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총무원장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뷰를 하면서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아 거북함을 느낀다.

정대스님의 인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불자들 대부분은, 스님들의 룸살롱 출입사건에 대해 "술 한 잔 먹은 걸 가지고 뭘 그러냐, 그건 타락이 아니다", 해인사 청동대불 건립과 관련해 "시주자의 뜻이니 따라야하지 않나"라고 말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불교계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그럼 룸살롱에 포교하러 갔나?" "전국 룸살롱불교연합회라도 결성해 포교에 한몫 하셔야죠!"라며 비아냥거리는 글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물론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평가한 것도, '여편네' '자기네' 운운하며 용어사용에 신중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불자들이 적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과 소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하지만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공인이라면 표현과 말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는 위치에서의 책임있는 자세다. 총무원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곧 불교계 전체 정서를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대스님은 인터뷰에서 "세상이 혼탁하니 종교계도 혼탁하다"고 말했다. 스님의 말 대로라면 혼탁한 세상과 종교계가 정화돼야 하고, 총무원장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터뷰 내용은 아쉬움이 짙게 남는다.

법보종찰 해인사 겨울 수련회

법보종찰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역사 속에서 법맥과 종풍을 이어온 수행도량이었으며, 근래에는 용성, 고암, 자운, 성철, 일타, 혜암스님등 종단의 어른들이 주석하면서 선풍을 진작시켜온 한국불교의 종가(宗家)이기도 합니다.
해인사는 현재에도 법전 종정예하를 중심으로 25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민족의 자랑이자 세계인의 문화유산인 고려팔만대장경을 봉안한 사찰로 이름 높습니다.
한국불교사에서 처음으로 총림(叢林/종합수도원)으로 지정된 해인사, 그러므로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수행전통과 불교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사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법당을 가득 메운 스님들이 연출해 내는 해인사의 새벽예불은 그 어떤 장면보다 장엄하고 감동적이며, 산사수련회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2002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해인사 겨울수련회는 3박4일 일정이며 여유로운 내용과 일과로 진행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불기 2546년 12월 일

■ 겨울수련회 일정

차수	기 간	연 령	대상자	인 원
1차	12월 18일(수)~12월 21일(토)	제한없음	일반인	100
2차	12월 25일(수)~12월 28일(토)	제한없음	수련동문회 · 일반인	100

※ 겨울수련회는 한파관계로 2차례만 실시하며, 1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2차는 수련회 경험이 있는 동문들에게 우선적으로 참가 기회를 드립니다.
■ 신청방법 : 1. 접수기간 : 2002년 11월 16일부터 선착순 마감
2. 접수처 해인사 포교국 (055-932-7430)
■ 인터넷 접수 : www. haein-sa.org ※ 접수는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수련회 참가비 : 개인당 8만원
■ 입금안내 : 농 협 / 843174-51-006770 (예금주 해인사) 우체국 / 611806-01-000455 (예금주 해인사)
※입금하실 때는 해당하는 수련회 차수를 이름 뒤에 기재하여 주시고, 입금된 접수비는 불참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 통 보 : 입금이 확인되면 수련생으로 확정되며, 자세한 수련회 안내는 메일로 개인 통보해 드립니다.
■ 준비물 : 필기구, 세면도구, 털신, 방한복, 털모자, 장갑 등
※수련복은 해인사에서 지급하오니 개인적으로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 안내 및 문의 : 해인사 포교국 055-932-7430, 해인사 종무소 055-931-1001~2
■ 자원봉사 모집 : 수련회를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기다립니다. (대학생 환영)
■ 전용버스 이용 안내 : 서울, 경기 지역 참가자는 수련회 당일 오전 7시에 서울 강남 버스 터미널 건너편에서 관광버스가 출발하오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에 관한 문의와 예약은 합천고속관광 장해용 기사(055-931-1390, 017-587-1390)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법보종찰 해 인 사 주지 세 민 합장